



이암블리코스의 피타고라스적 삶에 관하여

그리스어 원전 완역 · 테일러 판 전편 수록

컬러 PDF · 개인 영구 소장

이 PDF는 무료 샘플입니다

이 책의 앞표지와 앞 50쪽, 뒤표지를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51쪽부터는 ssbook.kr에서 구매하시면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ssbook.kr/book/iamblichus

POD 정가 ~~18,000원~~ → **10,800원** (60%)

ssbook.kr 홈페이지 안내

- **시리즈별 서가** — 인삼 · 오토파지 · 식물성 저탄고지 · 단식 · 생물리학 · 독립영양인간 · 중고등학교 교재 · 채식 · 라이프스타일 · 고대사
- **책마다 고유 주소** — 링크를 보내면 누구나 표지·소개·무료 샘플을 볼 수 있습니다
- **구매** — 회원가입(이메일 인증) 후 카드 결제(쿠키페이) → 내 서재에서 전체 컬러 PDF 내려받기
- **가격** — 종이책 POD 가격의 60%, 전 페이지 컬러 PDF
- **이용 범위** — 개인 영구 소장 가능, 공개 배포·재판매·공유 금지(내려받은 파일에는 구매자 정보가 표시됩니다)
- **책 신청 게시판** — 회원은 자유게시판에서 원하는 책 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세기 신플라톤주의 철학자가 엮은 피타고라스 공동체의 기록

이암블리코스의 피타고라스적 삶에 관하여

그리스어 원전 완역 · 테일러 판 전편 수록

2천 5백 년 전 남부 이탈리아, 침묵과 음악과 우정으로 살았던 이들의 기록

이암블리코스 지음 · 이광조 옮김

 SSP 과학과영성출판사

4세기 신플라톤주의 철학자가 엮은 피타고라스 공동체의 기록

이암블리코스의 피타고라스적 삶에 관하여

그리스어 원전 완역 · 테일러 판 전편 수록

이암블리코스 지음 · 이광조 옮김



과학과 영성출판사

옮긴이 머리말

피타고라스는 누구나 이름을 안다. 그러나 그에 관해 우리가 실제로 아는 것은 놀랍도록 적다. 그는 한 줄의 글도 남기지 않았고, 그의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것을 계율로 삼았다. 그래서 우리가 손에 쥔 것은 그가 죽고 여러 세기가 지난 뒤에 쓰인 몇 편의 전기뿐이다.

이 책은 그 가운데 가장 길고 가장 풍부한 한 편이다. 지은이는 4세기 시리아의 철학자 이암블리코스, 원래 제목은 『피타고라스적 삶에 관하여』이다. 그는 이 책을 피타고라스 철학으로 들어가는 열 권 짜리 총서의 첫 권으로 썼다. 그러니 이것은 한 사람의 생애를 기록한 전기이면서 동시에 한 학파의 삶의 방식을 소개하는 입문서다.

읽어 보면 곧 알게 되지만, 이 책은 근대적인 의미의 전기가 아니다. 지은이는 스승을 신에 가까운 존재로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의심 없이 나란히 늘어놓는다. 같은 이야기가 두 번 세 번 되풀이되기도 한다. 여러 자료를 앞에 놓고 옮겨 적은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책은 귀하다. 오늘날 사라진 아리스토텔레스의 피타고라스 연구, 아리스토크세노스의 기록, 니코마코스과 아폴로니오스의 저술이 여기에 인용의 형태로 남아 있다. 지은이가 성실한 편집자였던 덕분에, 우리는 그가 보던 책들의 그림자라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책에는 한 공동체의 구체적인 하루가 적혀 있다. 새벽에 홀로 산책하고, 성소에서 배우고, 몸을 단련하고, 점심에

빵과 꿀을 먹고, 저녁에 열 사람 이하로 모여 밥을 먹고, 가장 어린 사람이 책을 읽고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그 읽기를 이끌고, 헤어지기 전에 "사람이 기른 열매 맺는 나무를 해치지 말라"는 말을 듣는다. 침묵을 배우는 데 다섯 해가 걸리고, 하루를 마칠 때는 아침부터 있었던 일을 차례대로 되짚는다. 2천 5백 년 전 남부 이탈리아의 한 무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는 사실은, 그들이 믿었던 어떤 교의보다도 오래 마음에 남는다.

옮기면서 두 가지를 지키려 했다. 하나는 원문의 문장을 임의로 매끄럽게 만들지 않는 것이다. 지은이의 문장은 길고 겹치고 때로 어긋난다. 그 어긋남까지가 이 책의 상태이므로, 한국어가 견디는 한에서 그대로 두었다. 다른 하나는 절 번호를 본문에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 책은 예로부터 절 번호로 인용되어 왔고, 앞으로 독자가 다른 연구를 찾아볼 때도 그 번호가 길잡이가 된다.

옛사람의 책을 읽는 일에는 묘한 데가 있다.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잘못 알았는지 금방 알아본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무엇을 붙들고 살았는지는 좀처럼 알아보지 못한다. 이 책을 옮기는 동안, 나는 후자 쪽을 더 오래 생각하게 되었다. 독자에게도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일러두기

저본 이 번역의 저본은 아우구스트 나우크가 피렌체 사본을 바탕으로 교정하여 1884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펴낸 그리스어 교정본 『피타고라스적 삶에 관하여』이다. 이 판본과 이암블리코스의 원문은 모두 저작권이 소멸한 공유 자료이며, 이 책의 한국어 번역은 그 그리스어 원문에서 직접 옮긴 것이다. 대조에는 키슬링의 1815년 희랍·라틴 대역본과 토머스 테일러의 1818년 영역본을 참고하였으나, 번역문 자체는 어느 번역본도 저본으로 삼지 않았다.

이 책의 짜임 이 책은 세 부로 되어 있다. **제1부**는 이암블리코스의 『피타고라스적 삶에 관하여』 전편이다. **제2부**는 도리아 말로 쓰여 스토바이오스가 전한 피타고라스 학파의 윤리 단편 열네 편이고, **제3부**는 스토바이오스·섹스토스·이암블리코스 『권유편』에서 모은 잠언 세 묶음이다. 이 구성은 토머스 테일러가 1818년에 낸 책을 따른 것이다. 그 책은 『피타고라스적 삶에 관하여』 뒤에 바로 이 글들을 붙여 한 권으로 냈다.

무엇에서 옮겼는가 제1부는 그리스어 원문에서 옮겼다. 제2부와 제3부는 테일러의 1818년 영역본에서 옮기고, 제2부는 마이네케 판 스토바이오스(1855~57)의 그리스어와 대조하였다. 열네 편 가운데 열한 편의 그리스어 자리를 찾아 원문 표제를 함께 실었다. 이 사정과 그에 따른 한계는 제2부 여는 글에 자세히 밝혔다. 두 판본 모두 저작권이 소멸한 공유 자료다.

절 번호 본문 가운데 [1], [2] 와 같이 굵은 숫자로 표시한 것은 이 작품의 표준 절 번호다. 학계의 인용은 이 번호를 따른다. 나우크 판에서 보충된 절에는 [28x] 처럼 원문의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제2·3부의 번호는 테일러 판의 차례를 그대로 따랐으므로, 그가 주석을 단 자리에서는 번호가 건너뛰었다.

장 머리의 요지 각 장 첫머리에 인용 상자로 실은 '요지'는 옮긴이가 붙인 것이 아니라, 원전 맨 앞에 실려 전하는 고대의 장별 목차를 옮긴 것이다. 곧 이 책 자체가 지닌 차례다.

「**배경 읽기**」 각 장 끝에 옮긴이가 붙인 배경 해설을 두었다. 본문과 구별하려고 바탕색을 깔고 세로 줄을 그었다. 네 갈래로 되어 있다. **때와 곳**은 그 장의 일이 언제 어디서 벌어진 일인지를 밝히고, **배경지식**은 본문에 나오는 제도와 풍습과 사물을 설명하며, **사람**은 그 장에 나오는 인물을 간추리고, **그때 우리 땅**은 같은 무렵 우리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적었다. 마지막 갈래를 둔 까닭은 하나다. 기원전 6세기라는 낯선 시간을 우리가 아는 시간과 이어 붙여 보기 위해서다. 요하 언저리의 옛 문화와 고조선, 삼국의 기록, 그리고 우리 고유의 사상을 담았다고 하는 글들을 여기서 함께 다루었다. 이 해설은 원전에 없는 것이므로, 원전만 읽고자 하는 이는 건너뛰어도 좋다.

도판 지도·연표·도해 열두 점을 새로 그려 넣었다. 모두 옮긴이가 만든 것이며, 차례 뒤에 목록을 두었다. 지도는 공개 지리 자료(Natural Earth)의 실제 해안선과 강줄기 위에 그렸고, 어디인지 알

아보기 쉽도록 **전체 위치도를 함께 실었다**. 연표의 연대에는 전승에 따른 것이 섞여 있으며, 그런 자리는 도판 안에 밝혀 두었다.

권두의 「들여가기 전에」 본문에 앞서 피타고라스의 시대 전체를 조감하는 글을 두었다. 여기에 우리 땅의 연표를 함께 실었다. 그리스·이집트·오리엔트와 인도·중국·한반도를 나란히 놓은 대연표도 두 장 두었다.

고유명사 그리스어 원음에 가깝게 적는 것을 원칙으로 삼되(사모스, 크로톤, 메타폰티온, 페레퀴데스), 우리말에 굳어진 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쪽을 따랐다(이집트, 바빌론, 아폴론, 호메로스, 플라톤). 한 인물이 여러 표기로 알려진 경우에는 부록 1에 함께 적었다. 우리 쪽 이름과 말은 부록 6에 따로 풀이해 두었다.

번역어 피타고라스 학파 특유의 용어는 음을 옮기고 괄호 안에 뜻을 밝혔다. 아쿠스마티코이(들은 것을 따르는 이들), 마테마티코이(배움을 파고드는 이들), 테트라튀스, 페다르타시스(바로잡음)가 그러하다. 반복해 나오는 경우에는 처음 한 번만 밝혔다.

원문의 훼손 사본이 상하거나 구절의 차례가 뒤엎긴 자리가 몇 군데 있다. 특히 신탁의 시구나 인용 시가 산문 한가운데를 가르고 들어온 대목이 그러하다(2장, 7장, 14장, 28장). 이런 곳은 뜻이 통하도록 시구를 한자리에 모아 옮기고, 필요한 경우 부록 3에 밝혔다.

인용된 시 호메로스, 엠페도클레스, 리노스의 이름으로 전하는 시구 등은 모두 고대의 공유 자료이며, 산문과 구별하기 위해 큰따옴표 안에 넣었다.

이 책과 지은이에 대하여

이암블리코스 (대략 245~325년). 시리아 칼키스 출신의 신플라톤주의 철학자다. 포르퓌리오스에게 배웠고, 시리아 아파메이아에 학교를 열어 많은 제자를 길렀다. 그의 시대에 플라톤 철학은 이미 종교적 실천과 깊이 얽혀 있었고, 그는 그 흐름의 한복판에 있었다. 신들에게 다가가는 의례를 철학의 일부로 옹호한 그의 입장은 스승 포르퓌리오스와 갈라지는 지점이었다.

이 책의 자리 『피타고라스적 삶에 관하여』는 그가 기획한 열 권짜리 총서 『피타고라스 학설 집성』의 제1권이다. 제2권 『철학으로의 권유』, 제3권 『수학 총론』, 제4권 『니코마코스 산술 입문 주해』가 함께 전하고, 나머지는 사라졌다. 그러니 이 책은 본래 홀로 읽히려고 쓰인 것이 아니라, 긴 여정의 첫 문이었다.

자료의 출처 지은이는 자기 시대에 남아 있던 여러 자료를 엮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피타고라스 학파에 관해 쓴 글(오늘날 전하지 않는다), 기원전 4세기 아리스토크세노스의 『피타고라스적 삶에 관하여』, 2세기 니코마코스의 저술, 아폴로니오스의 기록 등이다. 이름을 밝히고 인용한 대목도 있고, 밝히지 않은 채 옮겨 온 대목도 있다. 같은 이야기가 이 책 안에서 두 번 나오는 것도 대개 출처가 다른 탓이다.

믿을 수 있는가 이 책에 실린 기적담을 역사적 사실로 읽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책을 통째로 버릴 수도 없다. 오늘날 학자들은 대체로 이렇게 다룬다. 아리스토크세노스에게서 온 것으로 보이는 대목, 곧

공동체의 규율과 일과와 인물들의 일화는 비교적 이른 시기의 전승으로 본다. 반면 신적인 출생과 기적, 수에 관한 형이상학적 해석은 후대의 층으로 본다. 독자도 그렇게 층을 나누어 읽을 수 있다. 이 책의 재미는 오히려 그 층들이 한 권 안에 그대로 겹쳐 있다는 데 있다.

피타고라스에 관하여 전하는 바로는 기원전 570년 무렵 사모스에서 태어나 기원전 495년 무렵 메타폰티온에서 죽었다. 이집트와 바빌론을 여행했다는 이야기는 이 책을 비롯한 후대 전기에 나오며,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알 수 없다. 확실한 것은 그가 남부 이탈리아 크로톤에 공동체를 세웠고, 그 공동체가 정치적 반발로 무너졌으며, 그럼에도 그 학풍이 필롤라오스와 아르퀴타스를 거쳐 플라톤에게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철학'이라는 말과 '코스모스'라는 말을 그가 처음 썼다는 이야기도 이 책에 나온다.

차 례

웁긴이 머리말	2
일러두기	4
이 책과 지은이에 대하여	7

배경

들어가기 전에 — 피타고라스의 시대

제1부 — 피타고라스적 삶에 관하여

제1장 머리말 — 신들께 청하며	25
제2장 피타고라스의 가문과 젊은 날	28
제3장 포이니케로, 다시 이집트로	35
제4장 이집트와 바빌론에서	39
제5장 사모스로 돌아오다	46
제6장 이탈리아로 떠난 까닭	52
제7장 이탈리아에서의 첫 자취	58
제8장 크로톤의 젊은이들에게	61
제9장 천인회 앞에서	67
제10장 소년들에게 권한 말	72
제11장 여인들에게 이야기하다	75
제12장 '철학자'라는 이름	79
제13장 짐승조차 그의 말을 들었다	82
제14장 전생의 기억에서 시작하다	85

제15장 음악으로 혼을 바로잡다	88
제16장 정화와 우정의 수련	92
제17장 제자를 고르는 시험	96
제18장 제자들을 나누는 법	103
제19장 여러 갈래의 가르침 — 아바리스 이야기	112
제20장 피타고라스 학파 고유의 수련	117
제21장 하루의 규범	120
제22장 격언으로 가르치다	124
제23장 상징이라는 감춘 말	127
제24장 먹지 않은 것들	131
제25장 음악에 의한 치유	135
제26장 화음의 발견	139
제27장 나라와 법에 남긴 것	145
제28장 신적이고 놀라운 일들	153
제29장 피타고라스의 지혜	167
제30장 정의에 관하여	175
제31장 절제에 관하여	186
제32장 용기에 관하여	199
제33장 우정에 관하여	208
제34장 여기저기서 모은 이야기들	216
제35장 피타고라스 사람들에 대한 봉기	221
제36장 계승과 죽음, 그리고 이름들	233

제2부 — 피타고라스 학파의 윤리 단편

제2부를 열며 — 도리아 말로 쓰인 윤리 단편들	240
투리오이 사람 히포다모스 『행복에 관하여』	244
에우뤼파모스 『인간의 삶에 관하여』	249
히파르코스 『평정에 관하여』	252
아르퀴타스 『종교 행복한 사람에 관하여』	255
테아게스 『덕에 관하여』	262
메타폰티온 사람 메토포스 『덕에 관하여』	265
타라스 사람 클레이니아스 단편	267
테아게스 『덕에 관하여』 (이어서)	268
아르퀴타스 『윤리 교육에 관하여』	274
아르퀴타스 『종교 행복한 사람에 관하여』 (2)	276
크리톤 『슬기와 번영에 관하여』	277
아르퀴타스 『종교 행복한 사람에 관하여』 (3)	280
아르퀴타스 『학문에 관하여』	281
아크라가스 사람 폴로스 『정의에 관하여』	282
 제3부 — 피타고라스 학파의 잠언	
제3부를 열며 — 잠언으로 남은 것들	286
스토바이오스가 모은 피타고라스 학파의 잠언	288
피타고라스 사람 섹스토스의 잠언 가운데	295
이암블리코스 『권유편』에 실린 피타고라스 잠언	304
 부록	
부록 1 인명·지명 풀이	307

부록 2 피타고라스 학파 용어 풀이	311
부록 3 원문에 관한 주석	314
부록 4 연표와 더 읽을거리	318
부록 5 — 우리 옛 기록에 관하여	322
부록 6 우리 옛 이름·말 풀이	328

도판

그림 0-1 기원전 6세기 — 같은 무렵, 여러 곳에서	14
그림 0-2 우리 땅의 시간	16
그림 0-3 기원전 800~400년의 세계 ① 그리스·이집트·오리엔트	19
그림 0-4 기원전 800~400년의 세계 ② 인도·중국·한반도	20
그림 0-5 피타고라스의 여정	23
그림 2-1 그 무렵의 한반도와 만주	34
그림 4-1 사이스 왕조의 이집트	41
그림 4-2 요하 언저리의 옛 문화들	44
그림 5-1 폴뤼크라테스 시절의 사모스	50
그림 6-1 대(大)그리스 — 남이탈리아의 그리스 도시들	55
그림 18-1 피타고라스 학파는 어떻게 짜여 있었나	109
그림 26-1 소리를 수로 붙잡은 두 갈래	143
그림 35-1 대(大)그리스 — 남이탈리아의 그리스 도시들	230

들어가기 전에 — 피타고라스의 시대

이 책은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에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가 죽고 800년쯤 지난 뒤에 쓴 것이다. 그러니 읽기 전에 두 개의 시간을 먼저 맞추어 두는 편이 좋다. 하나는 피타고라스가 살았던 기원전 6세기이고, 다른 하나는 이암블리코스가 이 책을 쓴 서기 4세기 초이다.

기원전 6세기 — 여러 곳에서 한꺼번에

이상한 일이지만, 피타고라스가 살던 무렵에 세상 여러 곳에서 비슷한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다. 그리스에서는 피타고라스와 탈레스가, 인도에서는 붓다와 마하비라가, 중국에서는 공자가 거의 같은 세대를 살았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말로, 그러나 비슷한 것을 묻기 시작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눈에 보이는 것 뒤에 무엇이 있는가.** 뒷사람들은 이 시기를 가리켜 '축(軸)의 시대'라 부르곤 한다.



그림 0-1 기원전 6세기 — 같은 무렵, 여러 곳에서

그러면 그때 **우리 땅**은 어떠했는가. 이것이 이 책을 옮기며 옮긴이가 가장 오래 붙들고 있던 물음이다.

그때 우리 땅

피타고라스가 사모스에서 태어난 기원전 570년 무렵, 이 땅은 **청동기 시대 후기**였다. 마을마다 고인돌을 세웠고 비파형동검을 만들었으며, 부여 송국리 같은 마을에서는 논에 벼를 심었다. 고인돌은 남

북한을 통틀어 **4만 기 남짓** 남아 있는데, 이만한 밀집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그 위에 있던 나라가 **고조선**이다. 중국 기록인 『관자』에 '발조선'이 나오는 것이 기원전 7세기 언저리이니, **피타고라스가 태어나기 한 세기쯤 전에 우리 이름이 남의 글에 처음 적힌 셈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요하 언저리가 있다. **홍릉와 문화**(기원전 6200~5200)의 옥 귀걸이는 세계에서 가장 이른 축에 들고, **홍산 문화**(기원전 4700~2900)의 우하량 유적에서는 제단과 신전과 돌무지 무덤이 한자리에서 나왔다. 이집트가 피라미드를 세우기 전의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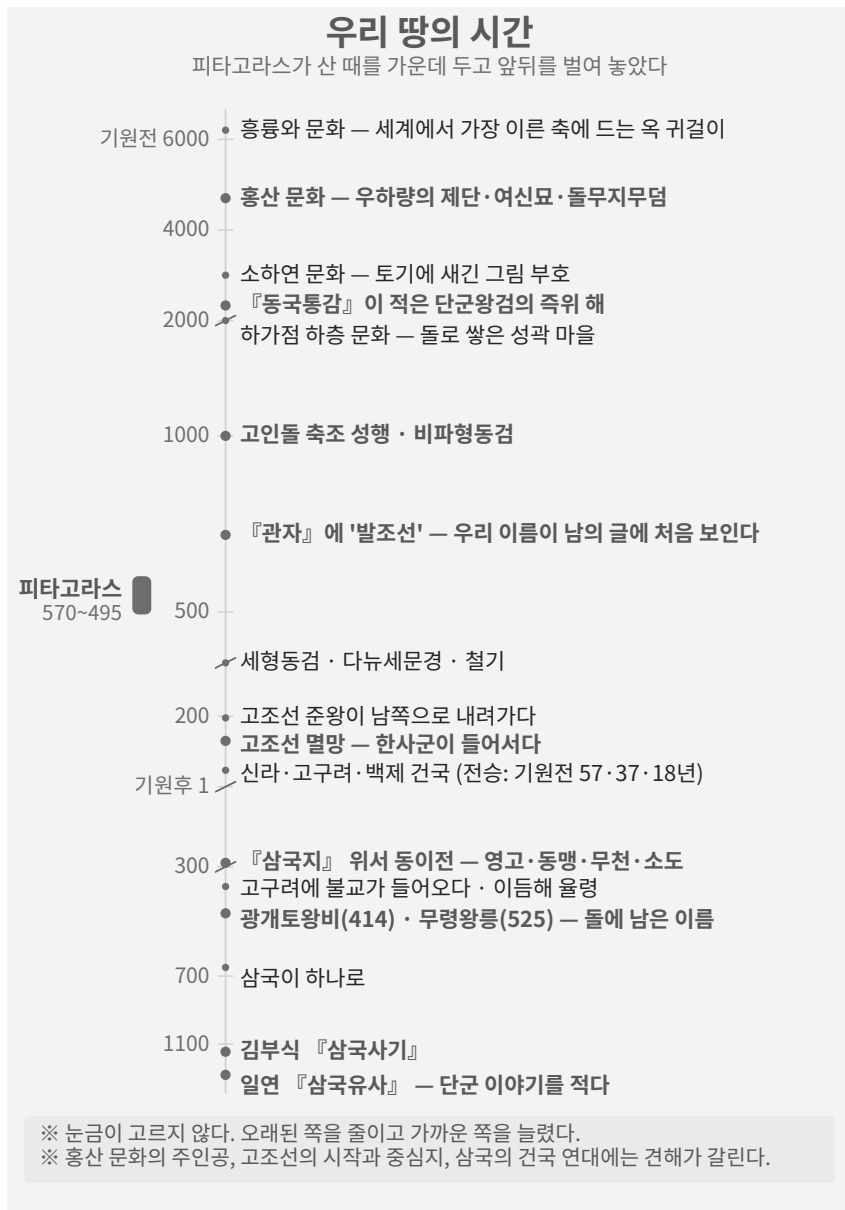


그림 0-2 우리 땅의 시간

다만 여기서 분명히 해 둘 것이 있다. 이 유적들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고조선이 언제 시작되었고 중심지가 어디였는가 — 이런 물음에는 아직 답이 하나로 모이지 않았다. 이 책은 **땅에서 나온 것과 글에 적힌 것**을 먼저 말하고, 해석이 갈리는 자리는 갈린다고 밝힌다. 그것이 우리 옛것을 오래 지키는 길이라고 옮긴이는 생각한다.

한 가지 더.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계경』, 『부도지』처럼 우리 고유의 사상을 담았다고 하는 글들이 이 책의 「배경 읽기」에 여러 번 나온다. 그 글들이 **오늘의 형태로 세상에 나온 시기와 내력**은 부록 5에 따로 정리해 두었다. 생각을 견주어 보되, 시대를 섞지는 않으려 한 것이다.

800년을 한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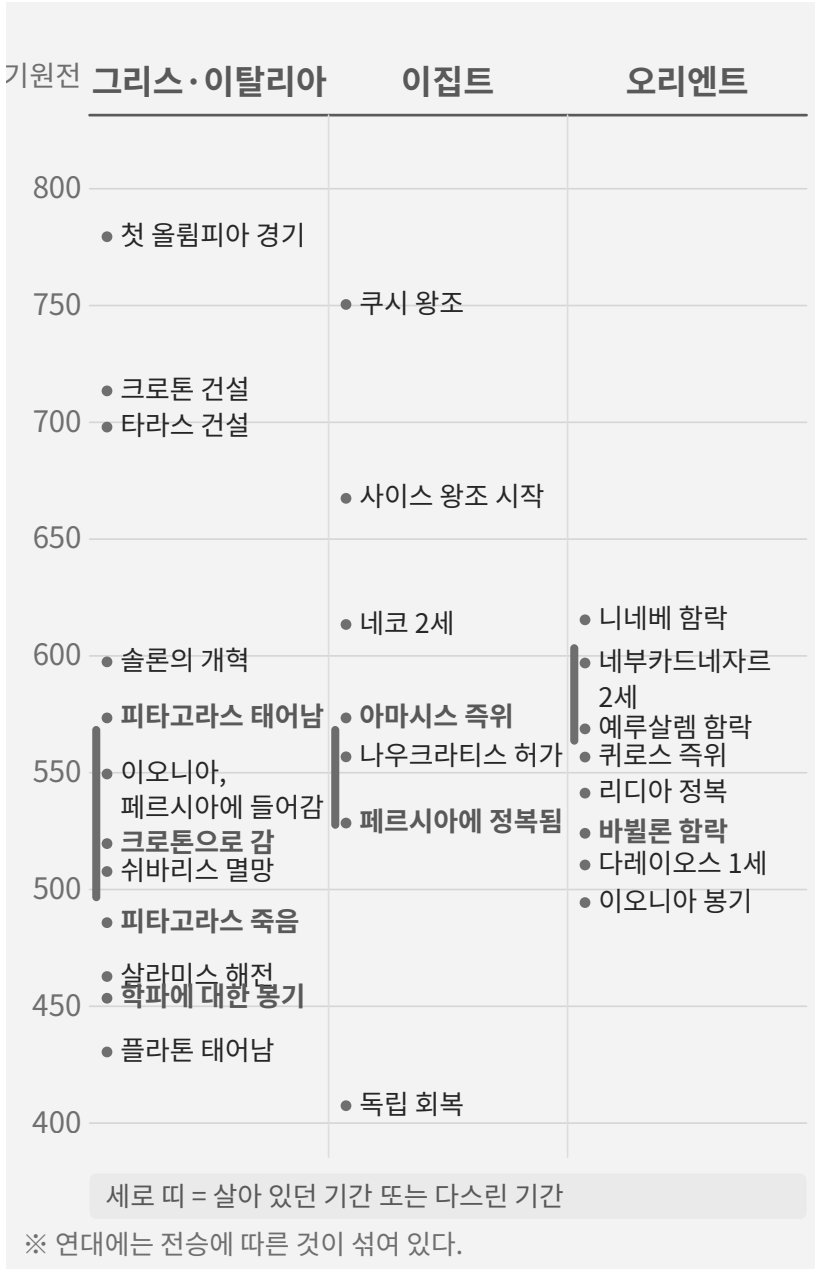


그림 0-3 기원전 800~400년의 세계 ① 그리스·이집트·오리엔트



그림 0-4 기원전 800~400년의 세계 ② 인도·중국·한반도

이 책이 쓰이기까지

피타고라스	기원전 570년 무렵 사모스에서 태어나 495년 무렵 메타폰티온에서 죽었다
그가 남긴 글	없다. 한 줄도 직접 쓰지 않았다는 것이 옛사람들의 한결같은 말이다
학파의 기록	기원전 5세기 필롤라오스, 4세기 아르퀴타스에 이르러 비로소 글이 남는다
초기 전거	아리스토텔레스와 그 제자들(아리스토크세노스·디카이아르코스)이 모은 이야기
이 책	서기 300년 무렵, 시리아의 이암블리코스가 앞선 자료들을 엮어 썼다

그러니까 이 책은 **800년에 걸쳐 전해 내려온 이야기들의 모음**이다. 지은이는 자기가 지어내지 않았다. 앞선 책들에서 옮겨 적었다. 그 과정에서 같은 이야기가 두 번 나오기도 하고, 앞뒤가 어긋나기도 한다. 그것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옮긴 것이 이 번역이다.

우리 쪽 사정도 다르지 않다. 일연이 『삼국유사』를 쓴 것은 단군의 일로부터 삼천 년이 훨씬 지난 뒤였고, 그는 『위서』와 『고기』를 인용하며 "어느 쪽이 옳은지 모르겠다"고 적어 두기도 했다. **먼 옛일을 뒷사람이 글로 붙잡는 일의 사정**은 지중해나 이 땅이나 같았다.

피타고라스 전기 세 가지

오늘 우리에게 남은 피타고라스 전기는 셋이다. 세 권 모두 서기 3~4세기의 것이고, 서로 겹치면서도 다르다.

지은이	때	분량	성격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 『철학자들의 생애』 제8권	서기 3세기	짧다	여러 설을 나란히 늘어놓는다
포르퓌리오스 『피타고라스의 생애』	서기 3세기 후반	중간	간결하고 전거가 분명하다
이암블리코스 『피타고라스적 삶에 관하여』	서기 300년 무렵	가장 길다	스승을 본받을 본보기로 그린다

이 책은 그 가운데 **가장 길고, 가장 뜨겁고, 가장 덜 냉정한** 것이다. 지은이는 역사가가 아니라 스승을 우러르는 사람이었다. 그 점을 알고 읽으면, 오히려 이 책이 더 많은 것을 말해 준다.

그가 다닌 길

앞으로 이 책은 그를 사모스에서 이집트로, 이집트에서 바빌론으로, 다시 사모스를 거쳐 남이탈리아의 크로톤으로 데려간다. 그 하나하나가 어떤 곳이었는지는 각 장 끝의 「배경 읽기」에서 살펴본다.



그림 0-5 피타고라스의 여정

제 1 부

피타고라스적 삶에 관하여

이암블리코스 · 그리스어 원전에서 옮김 · 전 36장 308절

제1장 머리말 — 신들께 청하며

요지 피타고라스의 철학에 관한 머리말. 여기서는 먼저 신들께 도움을 청하고, 이 일의 유익함과 어려움을 함께 밝힌다.

[1] 무릇 어떤 철학을 시작할 때에도 분별 있는 이라면 누구나 신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런데 신적인 피타고라스의 이름을 마땅히 따라 부르는 이 철학을 시작할 때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어울린다. 이 철학은 애초에 신들에게서 전해진 것이므로, 신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달리 붙잡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아름다움과 크기는 사람의 힘으로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다. 다만 신들 가운데 어느 한 분이 호의로 이끌어 주실 때, 조금씩 다가가며 가만히 그 한 자락을 얻어 낼 수 있을 따름이다.

[2] 그러므로 이 모든 까닭으로, 우리는 신들을 인도자로 모셔 청하고 우리 자신과 이 논의를 그분들께 맡긴 다음, 그분들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자. 이 학파가 이미 오랫동안 소홀히 여겨져 온 것도, 낯선 배움들과 어떤 비밀스러운 상징들에 가려져 있는 것도, 거짓되고 가짜인 술한 저술들이 그 위에 그늘을 드리운 것도, 그 밖의 여러 어려움이 길을 막는 것도 조금도 문제 삼지 말자. 우리에게는 신들의 뜻이면 넉넉하니, 그것과 함께라면 이보다 더 어려운 일도 견뎌 낼 수 있다. 신들 다음으로는 저 신적인 철학의 창시자이자 아버지를 우리의 인도자로 앞세우기로 하자. 다만 그에 앞서 그의 가문과 조국에 관하여 조금 거슬러 올라가 이야기하겠다.

배경 읽기

때와 곳

이 책이 쓰인 때 — 서기 300년 무렵. 곳 — 시리아의 아파메이아. 피타고라스가 죽고 약 800년 뒤이다.

배경지식

이 장은 기도로 시작한다. 그리스 사람들은 큰일을 시작할 때 신을 부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글을 쓸 때도 그랬다. 그러나 이암블리코스에게 이것은 형식만이 아니었다. 그는 **신플라톤주의**라 불리는 흐름에 속한 사람으로, 철학이란 머리로 따지는 일이기 전에 혼을 위로 끌어올리는 일이라고 믿었다.

이 책은 홀로 쓰인 것이 아니다. 『피타고라스주의 총서』라는 열 권짜리 기획의 **첫째 권**이었다. 뒤이어 『철학에 권함』, 『수학 일반론』, 『니코마코스의 산술 입문 주해』가 이어진다. 뒤 권들은 수와 비례를 다루고, 이 첫 권은 그런 공부를 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룬다. 제목이 '피타고라스의 생애'가 아니라 '**피타고라스적 삶에 관하여**'인 까닭이 여기 있다.

사람

이암블리코스 (245년 무렵~325년 무렵) — 시리아 칼키스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포르퓌리오스에게 배웠고, 포르퓌리오스는 플로티노스의 제자였다. 곧 이 책의 지은이는 플로티노스의 손제자인 셈이다. 뒷날 그는 스승보다 더 종교적인 길로 갔고, 그 때문에 후대 사람들에게 '신적인 이암블리코스'라 불렸다.

그때 우리 땅

이 책이 쓰인 서기 300년 무렵, 우리 땅은 **삼국이 자리를 잡아 가던 때**다. 고구려는 봉상왕, 백제는 책계왕에서 분서왕으로 넘어가던 무렵이고, 신라는 유례이사금 때다.

바로 앞선 시기에 중국에서 진수가 『삼국지』를 엮었는데, 그 「위서 동이전」이 오늘 우리가 부여·고구려·옥저·예·삼한을 아는 **가장 오래된 기록**이 되었다. 거기 이런 대목들이 있다. 부여는 설달에 하늘에 제사하며 **영고(迎鼓)**라 했고, 고구려는 시월에 **동맹(東盟)**을 열었으며, 예는 시월에 **무천(舞天)**을 지냈다. 마한에는 **소도(蘇塗)**라는 신성한 구역이 있어 죄를 짓고 그리로 달아나면 잡아가지 못했고, 그곳을 맡은 이를 **천군(天君)**이라 불렀다.

우리 손으로 적은 기록은 훨씬 뒤에 온다.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1145년, 일연의 『삼국유사』가 1281년이다. **이암블리코스가 800년 전의 스승을 글로 붙잡아 둔 것처럼, 일연도 수천 년 전의 일을 뒷날 글로 붙잡았다.** 옛일을 적는 사람의 처지는 어디서나 비슷했다.

제2장 피타고라스의 가문과 젊은 날

요지 피타고라스와 그의 가문, 조국, 양육과 교육, 여러 나라로의 여행, 고향으로의 귀환, 그리고 거기서 이탈리아로 떠난 일, 요컨대 그의 생애 전체에 관하여.

[3] 전하는 바로는, 케팔레니아의 사메에 살던 앙카이오스는 제우스의 후손이었다고 한다. 덕 때문이든 혼의 큰 그릇 때문이든 그런 명성을 얻은 이였으며, 슬기와 명망에서 다른 케팔레니아 사람들보다 뛰어났다. 그에게 퓌티아의 신탁이 내려, 케팔레니아와 아르카디아와 토티알리아에서 이주민을 모으고 아테나이와 에피다우로스와 칼키스에서도 사람을 더 받아, 그들 모두를 이끌고 한 섬에 나라를 세우라 하였다. 그 섬은 땅이 기름져 '멜람필로스(검은 잎의 섬)'라 불리던 곳이다. 그리고 그 도시를 케팔레니아의 사메를 대신하여 사모스라 부르게 하였다.

[4] 그 신탁은 이러하였다. "앙카이오스여, 사메를 대신하여 바다에 있는 섬 사모스에 나라를 세우기를 나는 명하노라. 그 섬은 필라스라 불린다." 앞에서 말한 여러 곳에서 이주민이 모여들었다는 증거는, 신들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가 사람들이 모여 온 그 지방들에서 그대로 옮겨져 왔다는 데에만 있지 않다. 사모스 사람들이 지금도 지키는 씨족의 관계와 서로 모이는 모임들에도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피타고라스를 낳은 므네사르코스와 퓌타이스는 바로 이 집안, 곧 이주를 이끈 앙카이오스에게서 나온 씨족에 속한다고 한다.

[5] 시민들 사이에서 이런 고귀한 혈통이 이야기되었으므로, 사모스 사람 가운데 어떤 시인은 그가 아폴론의 아들이라고 하며 이렇게 읊었다. "제우스께 사랑받은 아폴론이 뿔타이스에게 낳게 한 피타고라스여, 사모스 여인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던 그 뿔타이스에게서." 이 이야기가 어디서 비롯되어 널리 퍼졌는지는 짚어 볼 만하다. 이 사모스 사람 므네사르코스가 장사 때문에 아내와 함께 델포이에 가 있을 때, 아내는 아직 임신한 줄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그가 쉬리아로 가는 항해에 관하여 신탁을 묻자 뿔티아가 미리 알려 주었다. 그 항해는 더없이 순조롭고 이득이 있을 것이며, 아내는 이미 아이를 배었고, 여태껏 누구보다도 아름다움과 지혜에서 뛰어나며 온 생애에 걸쳐 인류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될 아들을 낳으리라고.

[6] 므네사르코스는 이렇게 헤아렸다. 묻지도 않은 아이에 관하여 신이 알려 주었다면, 그 아이에게는 참으로 빼어나고 신이 내린 무언가가 있으리라는 뜻이 아니겠는가. 그리하여 그는 곧바로 아내의 이름을 파르테니스에서 뿔타이스로 고쳐 불렀으니, 태어날 아이와 그 예언한 여사제의 이름을 따른 것이다.

[7] 그리고 아내가 포이니케의 시돈에서 아이를 낳자, 태어난 아들을 피타고라스라 불렀다. 뿔티오스 신이 그에게 미리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에피메니데스와 에우독소스와 크세노크라테스는 물리쳐야 한다. 그들은 그때 아폴론이 파르테니스와 몸을 섞어 임신하지 않았던 그녀를 임신하게 하고는 여사제를 통해 미리 알렸다고 짐작하였다.

[8] 그런 이야기는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다만 피타고라스의 혼이 아폴론의 통솔 아래 있었다는 것, 곧 그 신의 동행자이거나 그 밖의 다른 방식으로 그 신과 더 가까이 맺어져 사람들에게 내려보내 졌다는 것은, 이 탄생 자체와 그 혼의 온갖 지혜를 증거로 삼는다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탄생에 관해서는 이만하면 되겠다.

[9] 르네사르코스가 쉬리아에서 큰 이득과 넉넉한 재산을 얻어 사모스로 돌아온 뒤, 그는 아폴론께 신전을 지어 '튀티오스의 것'이라 새겼다. 그리고 아들을 여러 가지 값진 배움으로 길렀다. 어느 때는 크레오필로스에게, 어느 때는 쉬로스 사람 페레퀴데스에게, 또 어느 때는 거의 모든 신전의 책임자들에게 아들을 맡기고 데려가, 신적인 것들도 힘닿는 데까지 넉넉히 배우게 하였다. 그렇게 자란 그는 역사에 전하는 누구보다도 아름다웠고 더없이 신을 닮은 모습을 타고났다.

[10] 아버지가 죽은 뒤에도 그는 더없이 의젓하고 절제 있게 자랐다. 아직 아주 젊은 나이였는데도 이미 나이 많은 이들에게서까지 온갖 존경과 공경을 받았다. 그를 보고 그의 말을 들으면 모두가 그에게로 돌아섰고, 누구를 바라보든 그는 놀라운 사람으로 보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를 신의 아들이라 여기며 그 말을 굳게 믿은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그는 그러한 평판과 어릴 적부터의 교육과 타고난 신적인 모습으로 더욱 힘을 얻어,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에 걸맞은 사람임을 보이려고 스스로를 한층 더 다잡았다. 예배와 배움과 남다른 생활 방식으로, 혼의 흔들림 없음과 몸가짐의 단정함으로 자신을 가다듬었다. 그가 말하거나 행하는 모든 것에는 파도 없는 바다 같은 고요함이 있었다. 노여움에도 웃음에도 시샘에도 다툼에도, 그 밖의

어떤 소란이나 경솔함에도 사로잡히지 않았으니, 마치 사모스에 머무는 어떤 선한 다이몬 같았다.

[11] 그래서 그가 아직 소년티를 벗지 못하였을 때부터 큰 명성이 밀레토스의 탈레스에게로, 프리에네의 비아스에게로, 저 현인들에게로, 또 이웃 도시들로 퍼져 나갔다. 사람들은 여러 곳에서 이 젊은이를 "사모스의 긴 머리 젊은이"라 일컬으며 기리고 신처럼 떠받들며 이야기하였다. 마침 폴뤼크라테스의 참주정이 막 고개를 들던 무렵, 그는 열여덟 살쯤 되었는데, 일이 어디로 갈지 내다보았고 그것이 자기 뜻과 무엇보다 힘써 온 배움의 사랑을 가로막으리라 여겼다. 그리하여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헤르모다마스와 함께 떠났다. 이 사람은 크레오필로스 가문 사람이라 불렸는데, 시인 호메로스의 손님이자 벗이었으며 모든 이의 스승이었다는 크레오필로스의 후손이라고 전해진다. 그는 이 사람과 함께 페레퀴데스에게로, 또 자연을 탐구한 아낙시만드로스에게로, 그리고 밀레토스의 탈레스에게로 건너갔다.

[12] 그는 그들 하나하나를 차례로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태도가 어떠하였던지 모두가 그를 아끼고 그 타고난 바탕에 감탄하며 자기 논의의 동무로 삼았다. 특히 탈레스는 그를 기꺼이 맞아들였다. 그리고 그가 다른 젊은이들과 얼마나 다른지에 감탄하였으니, 이미 앞서 퍼진 명성보다도 더 크고 뛰어났기 때문이다. 탈레스는 자기가 줄 수 있는 배움을 다 나누어 준 뒤, 자신의 늙음과 쇠약함을 들어 이집트로 건너가 멤피스와 디오스폴리스의 사제들과 되도록 사귀라고 권하였다. 사람들이 자기를 지혜롭다 여기게 만든 것들도 바로 그들에게서 얻은 밀천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자기는 타고남으로

나 수련으로나 피타고라스에게서 보이는 만큼의 뛰어남을 얻지는 못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저 사제들과 함께 지내기만 한다면 그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신적이고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고, 모든 점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듯 말해 주었다.

배경 읽기

때와 곳

기원전 570년 무렵, 에게해 동쪽 끝의 섬 **사모스**. 아시아 쪽 물과는 배로 한 시간이 채 안 걸리는 거리다.

배경지식

사모스는 길이 43킬로미터, 너비 13킬로미터 남짓한 섬이다. 작지만 자리가 좋았다. 이오니아의 그리스 도시들과 포이니케·이집트를 잇는 뱃길의 한복판이었고, 섬사람들은 배를 부려 먹고살았다. 이런 곳에서 자란 아이에게 먼 데로 가는 일은 낯설지 않았다.

이 장에는 **델포이의 신탁**이 나온다. 그리스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에 물었다. 무녀 뤼티아가 읊조리면 신탁이 그것을 뜻이 통하는 말로 읊겼다. 나라의 살림부터 식민지를 어디에 세울지까지 물었으니, 오늘로 치면 국가적 자문 기관에 가까웠다.

아버지가 보석을 다루는 사람이었다는 전승도 눈여겨볼 만하다. **도장 반지**를 새기는 일은 작은 돌에 정밀한 비례를 새겨 넣는 손기술이다. 이 집에서 자란 아이가 뒷날 비례에 매달렸다는 것은 우연으로만 보기 어렵다.

사람

므네사르코스 — 아버지. 튀로스 사람이라는 설과 사모스 사람이라는 설이 갈린다.

뤼타이스 — 어머니. 사모스의 오래된 집안 사람이었다고 한다.

헤르모다마스 — 소년 피타고라스에게 호메로스를 가르친 사람. 호메로

스를 섬으로 들어온 크레오필로스 집안의 후손이라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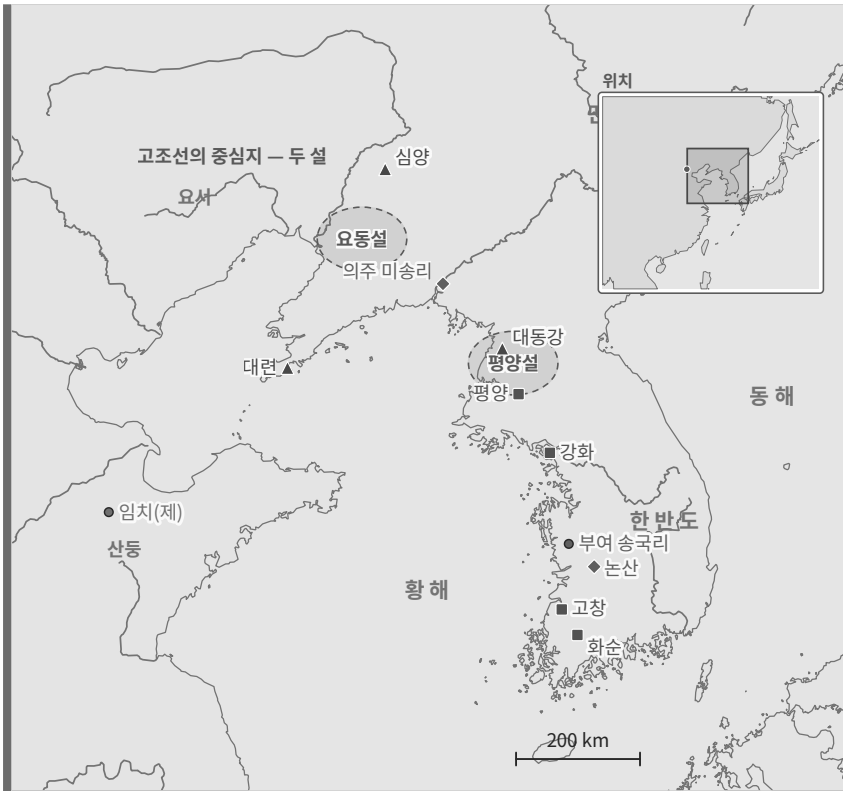
페레퀴데스 — 쉬로스 섬 사람. 혼의 불멸을 그리스에서 처음 글로 썼다는 이. 피타고라스가 끝까지 그를 돌보았다는 이야기가 뒤에 나온다.

그때 우리 땅

피타고라스가 태어난 **기원전 570년 무렵**, 우리 땅은 청동기 시대 후기였다. 마을마다 고인돌을 세웠고, **비파형동검**을 만들었으며, 부여 송국리 같은 마을에서는 이미 눈에 벼를 심었다. 남북한을 통틀어 고인돌이 4만 기 남짓 남아 있는데, 이만한 밀집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고창·화순·강화의 고인돌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올랐다.

이 시대의 나라가 **고조선**이다. 『삼국유사』는 『위서』를 인용해 이렇게 적었다. "지금으로부터 2천 년 전에 단군왕검이 있어 아사달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열어 조선이라 하였다." 이어 『고기(古記)』를 인용해 환인·환웅과 **홍익인간(弘益人間)**, **재세이화(在世理化)**를 전한다. 단군의 즉위를 기원전 2333년으로 못 박은 것은 훨씬 뒤인 15세기 『동국통감』이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 두는 편이 좋겠다. 고조선이 실재한 나라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중국 기록인 『관자』·『산해경』·『사기』에 조선이 나오기 때문이다. 다만 **언제 시작되었는가, 중심지가 어디였는가**는 아직 논의 중이다. 이 책에서 우리 쪽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런 자리를 그때그때 밝혀 두겠다.



기원전 800~400년 무렵의 자취

- 고인돌 — 남북한에 4만 기 남짓
- ▲ 비파형동검 — 요서·요동·한반도
- ◆ 미송리형 토기 — 고조선의 표지
- 송국리형 마울 — 논벼농사
- ◆ 다뉴세문경 — 잔줄무늬 거울

※ 해안선은 실제 자료 · 출토지는 대표적인 곳만

그림 2-1 그 무렵의 한반도와 만주

제3장 포이니케로, 다시 이집트로

요지 그가 포이니케로 건너간 항해는 어떠하였고 거기서의 체류는 어떠하였는가, 또 거기서 이집트로 떠난 여정은 어떠하였으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13] 탈레스에게서 여러 가지를 배웠지만 무엇보다 시간을 아끼는 법을 배운 그는, 그 때문에 술과 고기를 끊었고 그전에 이미 많이 먹는 일도 끊었다. 그리고 가볍고 잘 소화되는 음식으로 양을 맞추었다. 그리하여 잠은 적어지고 눈은 맑아지고 혼은 깨끗해졌으며, 몸은 더없이 온전하고 흔들림 없는 건강을 얻었다. 그런 뒤에 그는 시돈으로 배를 타고 떠났다. 그곳이 본래 자기가 난 고장이라는 말을 들었고, 거기서라면 이집트로 건너가기가 더 쉬우리라 여겼기 때문이다.

[14] 거기서 그는 자연을 탐구한 예언자 모코스의 후손들과 그 밖의 포이니케 사제들을 만났고, 뷔블로스와 튀로스와 쉬리아의 여러 지방에서 특별히 거행되던 신적인 비의를 모두 받았다. 그가 이런 일을 견뎌 낸 것은 누가 쉽게 짐작하듯 미신 때문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신들의 비밀이나 비의 속에 감추어 지켜지는 배울 만한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조심성과, 봄(觀)에 대한 사랑과 갈망 때문이었다. 게다가 그는 그곳의 성소들이 어떤 뜻에서 이집트 성소의 자식이요 후손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더 아름답고 더 신적이며 더 순수한 배움에 참여하리라 기대하였다. 스승 탈레스의 당부를 따라 그는 배에 올랐고, 마침 포이니케의 카르멜 산

아래 해안에 때맞추어 배를 댄 이집트 뱃사람들이 그를 지체 없이 건네주었다. 피타고라스는 그 산의 성소에서 홀로 지내는 일이 많았다. 그 뱃사람들은 그를 반갑게 맞았는데, 그 꽃다운 나이를 이용해 이득을 보거나 팔아넘겨 큰 값을 받으려는 속셈이었다.

[15] 그러나 항해하는 동안 그가 스스로 절제하며 의젓하게, 몸에 밴 수련 그대로 지내는 것을 보고 그들은 그에 대한 생각을 고쳐먹었다. 그 소년의 단정함에서 사람의 본성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또 배를 댔을 때 그가 카르멜 산꼭대기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았던 일을 떠올렸다. 그 산이 다른 어떤 산보다 거룩하며 뭇사람에게는 오를 수 없는 곳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천천히,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 내려왔으며, 벼랑도 험한 바위도 그를 막지 못하였다. 그러고는 배 앞에 서서 "이집트로 가는 길이요?" 한마디만 묻고, 그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배에 올라, 항해하는 그들에게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을 자리에 말없이 앉았다.

[16] 그리고 항해 내내 두 밤 사흘을 같은 자세로, 먹지도 마시지도 자지도 않고 머물렀다. 다만 앓은 채 흔들림 없는 그 자세 그대로 아무도 모르게 잠깐 졸았을 뿐이다. 게다가 그들의 항해는 뜻밖에도 꿀김 없이 곧게 뻗어 나갔으니, 마치 어떤 신이 함께 타고 있는 듯하였다. 이 모든 일을 맞추어 보고 헤아린 끝에 그들은 참으로 신적인 다이몬이 자기들과 함께 쉬리아에서 이집트로 건너가고 있다고 믿게 되었다. 그리하여 남은 항해를 더없이 경건하게 마쳤고, 서로에게나 그에게나 여느 때보다 정중한 말과 몸가짐을 썼다. 마침내 배는 항해 내내 파도 한 번 없이 더없이 순조롭게 이집트 해안에 닿았다.

[17] 그가 배에서 내릴 때 모두가 공손히 부축하여 받들고는 더없이 깨끗한 모래 위에 앉혔다. 그리고 그 앞에 임시 제단을 쌓고 가진 과일을 첫 열매처럼 쌓아 올린 뒤, 본래 가려던 곳으로 배를 옮겨 갔다. 그는 그토록 오래 먹지 않아 몸에 힘이 없었으므로, 배에서 내릴 때 뱃사람들이 부축하고 손을 잡아 주는 것을 그때는 마다하지 않았다. 그들이 떠난 뒤에도 앞에 놓인 과일을 오래 마다하지 않고 요긴하게 먹어 기운을 차린 다음, 가까운 마을까지 무사히 갔다. 어떤 일에서나 그 흔들리지 않고 너그러운 됴됨이를 그대로 지키면서.

배경 읽기

때와 곳

기원전 554~547년 무렵, 열여덟에서 스물두 살 사이. 포이니케(오늘의 레바논 해안)를 거쳐 이집트로.

배경지식

포이니케는 튀로스·시돈·뵈블로스 같은 항구 도시들의 이름이다. 이들은 지중해 전역에 배를 띄웠고, 자주색 염료와 유리, 그리고 무엇보다 **알파벳**을 퍼뜨렸다. 그리스 문자도 여기서 왔다. 피타고라스가 이곳에 머물렀다는 이야기는, 그가 동방으로 가는 관문에서 한동안 머뭇거렸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집트로 가는 길은 이 무렵 갑자기 넓어졌다. 파라오 **아마시스**가 나일 삼각주의 **나우크라티스**를 그리스 상인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리스인은 그곳에 자기네 신전을 세우고 장사를 했다. 오늘날 발굴로 그리스 도자기와 부적 공방 터가 쏟아져 나온 바로 그 자리다.

주의할 점 하나 — 이 책은 사모스의 참주 폴뤼크라테스가 써 준 소개장을 들고 갔다고 한다. 그런데 폴뤼크라테스가 권력을 잡은 것은 기원전 538년 무렵이고, 피타고라스가 이집트로 간 것은 그보다 앞선다. **연대가**

맞지 않는다. 옛 전기에는 이런 어긋남이 드물지 않다. 이 책 부록 3에 그런 자리들을 모아 두었다.

사람

아마시스(이집트 이름 아호모세 2세, 재위 기원전 570~526) — 군인 출신으로 왕이 된 사람. 그리스에 문을 열어 준 파라오다. 헤로도토스는 그를 술 좋아하고 농담 잘하는 실용적인 왕으로 그렸다.

폴뤼크라테스 — 사모스의 참주. 바다를 제패했고, 끝내 페르시아 총독에게 속아 죽는다.

그때 우리 땅

피타고라스가 배를 타고 동쪽으로 가던 그 무렵, 우리 땅에서도 물건과 기술이 먼 길을 오갔다.

증거는 청동기다. **비파형동검**은 요서와 요동, 그리고 한반도 전역에서 나온다. 같은 모양의 칼이 수천 리에 걸쳐 발견된다는 것은, 그 사이를 사람이 오갔다는 뜻이다. **미송리형 토기도** 마찬가지로, 학계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나오는 범위를 고조선의 자취로 읽는다.

글로 남은 자취도 있다. 중국 책 『관자』의 「규도」와 「경중갑」 편에 제나라 환공과 관중이 '**발조선(發朝鮮)**'의 가죽옷을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다. 관중은 기원전 7세기 사람이고 책은 뒷날 엮인 것이지만, **우리 이름이 남의 글에 처음 나타나는 자리**라는 점에서 뜻이 깊다. 피타고라스가 이집트로 떠나기 대략 한 세기 전의 일이다.

바다로도 오갔다. 남해안 조개더미에서는 멀리서 온 옥과 조개 팔찌가 나오고, 일본 규슈의 야요이 유적에서는 한반도계 청동기가 나온다. 동과 서에서 저마다, 배와 발로 먼 곳을 잇고 있었다.

제4장 이집트와 바빌론에서

요지 이집트에서의 그의 체류는 어떠하였고, 거기서 어떻게 바빌론으로 떠났으며, 거기서 마고스들과 어떻게 함께 지냈는가.

[18] 거기서부터 그는 더없이 열심히, 그리고 꼼꼼히 살피면서 모든 성소를 찾아다녔다. 함께 지낸 사제들과 예언자들에게 감탄과 사랑을 받으며 하나하나에 관하여 아주 정성스럽게 배웠다. 당대에 이름난 가르침이라면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고, 슬기로 알려진 사람이라면 누구도 지나치지 않았으며, 어디서든 받들어지는 비의라면 어느 것도 놓치지 않았고, 무언가 더 깊은 것을 찾으리라 여긴 곳이라면 어느 곳도 보지 않고 넘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제를 찾아다니며 저마다 지혜로운 만큼 저마다에게서 배움을 얻었다.

[19] 그렇게 스물두 해를 이집트의 지성소에서 보내며 천문을 익히고 기하를 배우고 비의에 입문하였다. 신들의 온갖 비의를 건성으로 나 되는대로가 아니라 빠짐없이 받았다. 그러다 캄뷔세스의 군사들에게 사로잡혀 바빌론으로 끌려갔다. 거기서 그는 마고스들과 서로 기꺼이 함께 지내며 그들의 존엄한 가르침을 배웠고, 신들을 섬기는 법을 더없이 온전하게 익혔으며, 수와 음악과 그 밖의 배움에서도 그들에게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렇게 열두 해를 더 보낸 뒤 사모스로 돌아왔으니, 그때 나이가 쉰여섯쯤이었다.

배경 읽기

때와 곳

이집트에서 22년(기원전 547년 무렵~525년), **바빌론에서 12년**(기원전 525~513년 무렵). 이 책이 전하는 헛수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그가 본 이집트는 어떤 나라였나



그림 4-1 사이스 왕조의 이집트

항목	그 무렵의 이집트
다스린 땅	제1폭포(엘레판티네)에서 지중해까지 나일강을 따라 약 1,200 km
사람이 사는 곳	강 양쪽 골짜기와 삼각주뿐. 너비는 좁은 데가 5 km, 넓은 데가 20 km 남짓
경작지	약 2만 7천 k ² 안팎으로 본다. 나라 넓이의 한 자릿수 퍼센트
사람 수	학자들은 300만~500만 명 으로 추정한다. 헤로도토스는 아마 시스 때 "사람 사는 마을이 2만 개였다"고 적었다
먹을 것	밀(엠머)과 보리, 그리고 아마·파피루스. 곡물은 수출품 이었다
땅을 기름지게 한 것	해마다 여름에 넘치는 나일의 진흙. 거름을 따로 주지 않아도 되었다
글자	세 가지를 함께 썼다 — 신성문자(그림글자), 신관문자(홀림), 민중문자 (기원전 650년 무렵부터 쓰기 시작한 빠른 글씨)
책력	한 해를 365일 로 잡았다. 30일짜리 달 열둘에 닳새를 더했다
셈	분자를 1로만 쓰는 분수, 기울기를 재는 '세케드', 원의 넓이를 지름의 8/9을 제곱해 구하는 법(오늘 값으로 치면 원주율 3.16)
배움터	큰 신전마다 ' 생명의 집 '이라 불린 서고 겸 학교가 있었다
오늘 남은 것	사이스는 돌이 뜯겨 나가 터만 남았다. 나우크라티스는 1884년부터 발굴되어 그리스 도자기가 쏟아졌다. 사카라의 아피스 황소 무덤 에는 아마시스 때 묻힌 소들이 있다. 엘레판티네에서는 기원전 5세기 아람어 문서 뭉치가 나왔다

피타고라스가 22년을 머물렀다는 신전 도시 셋 — **헬리오폴리스·멤피스·테바이** — 은 모두 오늘날 발굴된 곳이다. 헬리오폴리스는 카이로 북동쪽 마을 아래 묻혀 있고, 멤피스에는 프타 신전 터와 쓰러진 거상이 남았으며, 테바이의 카르나크 신전은 지금도 서 있다.

그가 본 바빌론

도시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크게 지은 성. 성벽 둘레가 18 km에 이르렀다
신전	에테메난키 — 한 변 91 m의 층층 탑. '바벨탑' 이야기의 뿌리
문	이슈타르 문. 1899년부터 독일 발굴대가 파냈고, 지금은 베를린에 복원되어 있다
하늘을 적은 일	기원전 652년부터 끊이지 않고 이어진 천문 기록 이 있다. 사람이 남긴 가장 긴 관측 장부다
셈	60을 한 묶음으로 하는 셈법. 오늘 우리가 한 시간을 60분으로 나누는 것이 여기서 왔다

혼과 수와 별을 한자리에서 다루는 법을 그가 어디서 배웠는가 묻는다면, 이 도시를 빼고 답하기 어렵다.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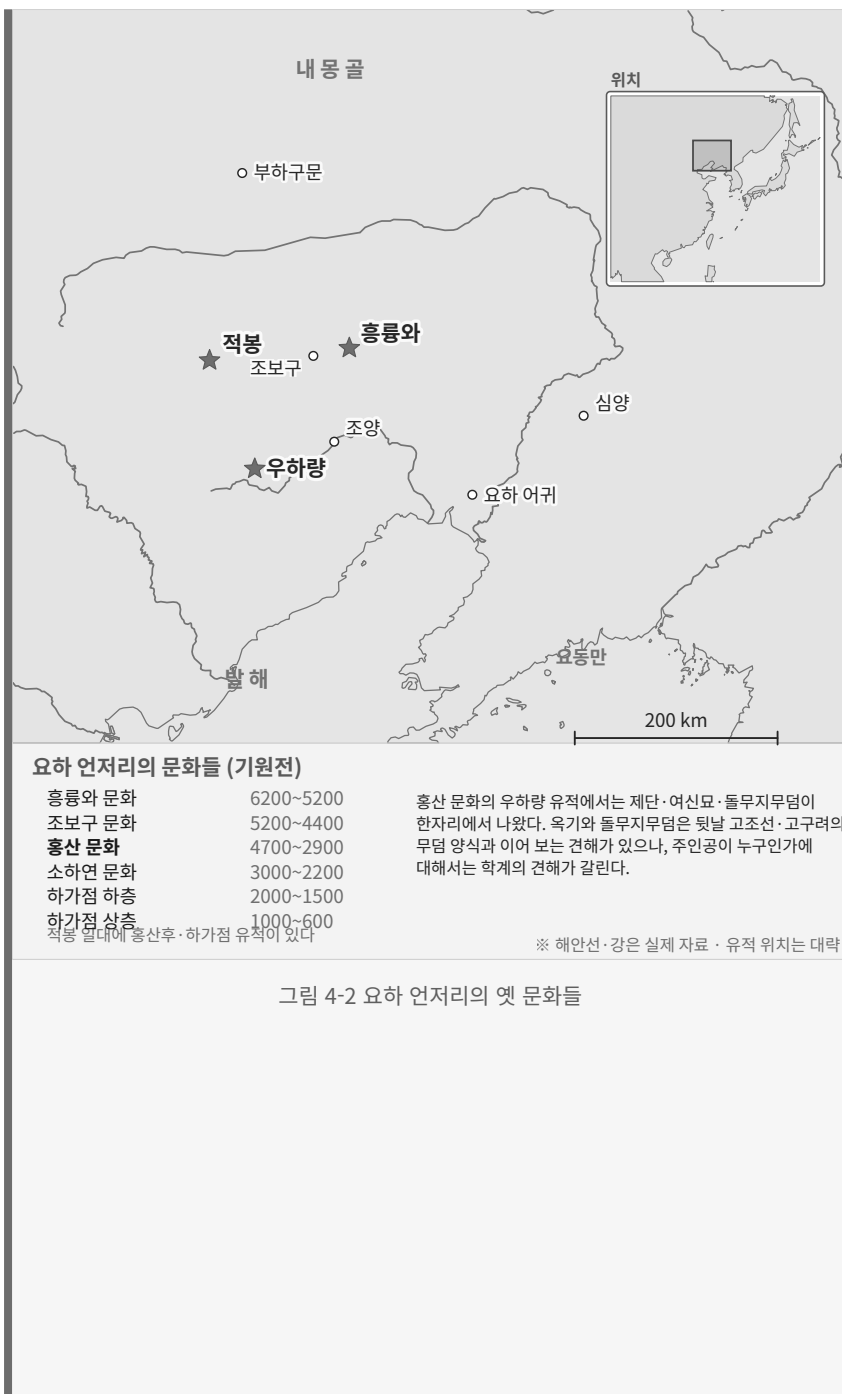
캠뷔세스 2세 — 페르시아 왕. 기원전 525년 펠루시온에서 이집트군을 깨뜨리고 나라를 삼켰다. 이 책은 그가 피타고라스를 포로로 끌고 갔다고 한다.

우자호레스네트 — 이집트 해군 사령관이자 신관. 나라가 넘어가자 페르시아 왕을 섬기며 신전을 지켜 냈다. 그가 자기 일생을 새긴 조각상이 지금 바티칸에 있다. **정복당한 쪽의 목소리로 남은 드문 기록**이다.

마고스 — 페르시아의 사제 계급. 이 책은 피타고라스가 이들에게 배웠다고 전한다.

그때 우리 땅

피타고라스가 이집트에서 오래된 신전을 찾아다니던 무렵, 우리가 '오래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요하 언저리로 눈을 돌려 보자.



문화	때(기원전)	남긴 것
흥륭와	6200~5200	세계에서 가장 이른 축에 드는 옥 귀걸이, 줄지어 늘어선 집터
조보구	5200~4400	짐승 얼굴을 새긴 토기
홍산	4700~2900	우하량의 제단·여신묘·돌무지무덤, 옥으로 만든 용과 새
소하연	3000~2200	그림 부호를 새긴 토기
하가점 하층	2000~1500	돌로 쌓은 성곽 마을
하가점 상층	1000~600	비파형동검

우하량 유적(1983년부터 발굴)이 특히 중요하다. 제단과 신전과 무덤이 한자리에 있고, 무덤에 옥기를 넣은 이와 넣지 못한 이가 갈린다. 이집트가 피라미드를 세우기 전에, 이 땅에도 신을 모시고 위아래를 가른 사회가 있었다는 뜻이다.

다만 조심할 것이 있다. 홍산 문화의 주인공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린다. 우리 학계 일부는 돌무지무덤과 옥기가 뒷날 고조선·고구려로 이어진다고 보고, 중국 쪽은 중화 문명의 뿌리로 설명한다. 유물은 말이 없고 해석이 다툰다. 이 책은 유적이 거기 있다는 사실만 전하고, 해석은 열어 둔다.

한 가지 더. 이집트는 세 가지 문자를 나란히 썼고, 바빌론은 기원전 652년부터 하늘을 적어 두었다. 우리 땅은 이 시기에 문자 기록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흙에서 나온 것으로만 그 시절을 읽는다. 이것이 우리 고대사를 다룰 때 늘 부딪히는 벽이다.

제5장 사모스로 돌아오다

요지 그가 어떻게 다시 사모스로 돌아왔는가, 사모스에 머무는 동안의 생활은 어떠하였는가, 자기와 이름이 같은 소년을 어떤 놀라운 방법으로 가르쳤는가, 그리고 헬라스 여러 지방으로의 여행과 사모스에 서의 수련 방식.

[20] 나이 든 몇 사람이 그를 알아보았고, 그를 향한 감탄은 예전보다 덜하지 않았다. 그가 더 아름답고 더 지혜롭고 더 신을 닮아 보였기 때문이다. 조국이 공적으로 그에게 모든 이를 이롭게 하고 품은 생각을 나누어 달라고 청하자, 그는 마다하지 않고 상징을 쓰는 가르침의 방식을 시도하였다. 그것은 그가 배워 온 이집트의 가르침과 모든 점에서 같은 방식이었다. 다만 사모스 사람들은 그런 방식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고, 마땅히 그래야 할 만큼 어울리게 받아들이지도 못하였다.

[21] 아무도 그에게 마음을 두지 않았고 배움을 진심으로 바라지도 않았다. 그는 그 배움을 어떻게든 헬라스 사람들 속에 심으려 애쓰던 참이었다. 그러면서도 사모스가 조국이라 하여 알아보거나 소홀히 하지 않았고, 동포들에게 기어이 그 배움의 아름다움을 맛보게 하려 하였다.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꾀와 방법으로라도 그리하려 하였다. 그래서 그는 체육관에서 공놀이를 하던 한 젊은이를 눈여겨보았다. 몸을 단련하기를 즐겨 훈련에 힘썼으나 살림은 가난하고 궁핍한 젊은이었다. 그는 걱정 없이 지낼 만큼 넉넉히 대 주면 이 젊은이가

말을 잘 들으리라 헤아렸다. 목욕을 마친 뒤 그 젊은이를 불러, 몸을 단련하고 돌보는 데 드는 비용을 넉넉히 계속 대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다만 자기가 젊어서 이방인들에게서 배웠으나 이제 늙어 잊어 가는 어떤 배움들을, 한꺼번에 짐이 되지 않도록 조금씩 힘들이지 않고 꾸준히 이어받는다는 조건이었다.

[22] 젊은이가 그러겠다고 하고 먹고살 것을 기대하며 건디기로 하자, 그는 수와 기하로 그를 이끌려 하였다. 썸판 위에서 하나하나 증명해 보이고, 도형 하나를 익힐 때마다 품삯이자 수고의 대가로 젊은이에게 세 오볼로스를 주었다. 그는 오랫동안 이 일을 계속하였다. 더없이 정성스럽고 부지런하게, 가장 좋은 차례를 밟아 관조로 이끌면서, 도형 하나를 받아들일 때마다 세 오볼로스를 건네주었다.

[23] 그런데 젊은이가 알맞은 길을 따라 이끌리면서 그 학문의 빼어난 것과 그 안의 즐거움과 이치의 이어짐을 붙들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이 지혜로운 이는 이제 그가 제 발로는 배움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무슨 일을 겪어도 그러하리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가난하다는 핑계를 대며 세 오볼로스가 없다고 하였다.

[24] 젊은이가 "그것 없이도 저는 배울 수 있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자,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런데 나는 나 자신을 먹일 것조차 이제 없다네. 날마다 필요한 것과 그날의 양식을 구하는 데 시간을 써야 할 판이니, 썸판이나 쓸모없는 헛수고에 매달려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지." 그러자 관조를 이어가는 일에서 도무지 떨어지지 못하게 된 젊은이가 이렇게 말하였다.

"앞으로는 제가 선생님께 대 드리겠습니다. 어미 새에게 되갚는 새끼 새처럼 말입니다. 도형 하나마다 제가 선생님께 세 오볼로스를 드리겠습니다."

[25] 그때부터 그는 배움에 그토록 사로잡혀, 사모스 사람 가운데 홀로 피타고라스를 따라 떠났다. 그는 이름이 같은 피타고라스였고 에라토클레스의 아들이었다. 운동선수를 위한 저술들과, 그 시절 선수들에게 말린 무화과 대신 고기를 먹이도록 한 규정은 바로 이 사람의 것으로 전해진다. 그것을 므네사르코스의 아들 피타고라스에게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 한편 같은 무렵 그는 델로스에서도 감탄을 받았다고 한다. 이른바 피 흘리지 않는 제단, 곧 낳으신 이 아폴론의 제단에 나아가 그것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 뒤 그는 모든 신탁소를 찾아다녔다. 또 법을 배우려고 크레테와 스파르타에도 머물렀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배운 뒤 집으로 돌아와, 아직 남겨 둔 것들을 탐구하는 일에 나섰다.

[26] 먼저 그는 도시 안에 강학의 자리를 마련하였는데, 지금도 '피타고라스의 반원'이라 불리는 곳이다. 오늘날 사모스 사람들은 여기서 공적인 일을 의논한다. 아름다운 것과 옳은 것과 이로운 것에 관한 탐구는 그 모든 일을 돌보았던 이가 마련한 이 자리에서 해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27] 또 도시 밖에는 자기 철학에 어울리는 동굴을 만들어, 밤낮의 많은 시간을 거기서 보내며 배움 가운데 쓸모 있는 것들을 탐구하였다. 제우스의 아들 미노스와 같은 생각에서였다. 그는 뒷날 그의 배

움을 이어 쓴 이들보다 훨씬 뛰어났으니, 그들은 자잘한 정리에도 크게 우쭐하였으나 피타고라스는 하늘에 관한 학문을 완성하였고 산술과 기하의 증명 전체로 그것을 밝혀 놓았다.

[28] 그뿐 아니라 그가 그 뒤에 한 일들을 보면 더욱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철학이 크게 자라나고 온 헬라스가 그를 우러르려 하였으며, 가장 훌륭하고 철학을 가장 사랑하는 이들이 그를 보려고 사모스로 찾아와 그의 가르침에 함께하기를 바라던 때였다. 그런데 동포들은 그를 온갖 사절의 임무에 끌어들이고 여러 공적 부담을 함께 지도록 강요하였다. 그는 조국의 법을 따르면서 여기 머물러 철학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또 앞서 철학한 이들이 모두 타향에서 생애를 보냈다는 것을 헤아렸다.

배경 읽기

때와 곳

기원전 513년 무렵, 원여섯 살. 다시 사모스로.

배경지식



그림 5-1 폴뤼크라테스 시절의 사모스

그가 돌아온 사모스는 떠날 때와 달랐다. **폴뤼크라테스**가 배 백 척을 부려 에게해를 휘어잡았고, 섬에는 세 가지 큰 공사가 벌어졌다. 헤로도토스는 이것을 그리스 사람이 해낸 가장 큰 일들로 꼽았다.

- **에우팔리노스의 물길** — 산을 1,036미터 뚫어 샘물을 성안으로 끌어 들였다. 놀라운 것은 **양쪽에서 동시에 파 들어가 가운데서 만났다**는 점이다. 도구라고는 정과 망치뿐이던 시절에 방향과 높이를 맞추려면 상당한 측량 솜씨가 있어야 한다. 오늘날 그 굴은 들어가 볼 수 있다.
- **방파제** — 항구를 지키려 바다를 메웠다.
- **헤라 신전** — 당시 그리스에서 가장 큰 신전이였다.

이 장에서 피타고라스는 고향에 오래 머물지 못한다. 사람들이 그를 관직과 사절 노릇으로 끌어당겼기 때문이다. 배우려는 사람에게 고향이 늘 좋은 곳은 아니다.

철학은 어떻게 하나의 삶이 되었는가

피타고라스는 한 줄의 글도 남기지 않았다. 그와 그 공동체의 삶을 가장 길고 풍부하게 전하는 책은 4세기 시리아의 신플라톤주의 철학자 이암블리코스가 쓴 『피타고라스적 삶에 관하여』다. 오늘날 사라진 아리스토텔레스와 아리스토클레노스의 기록도 이 책 안에 인용의 형태로 남아 있다.

이 책은 그 그리스어 원전을 직접 옮긴 완역본이다. 전 36장 308절을 표준 절 번호와 함께 실고, 토머스 테일러의 1818년 판 구성을 따라 피타고라스 학파의 윤리 단편 열네 편과 잠언 세 묶음을 더했다. 각 장 끝에는 옮긴이가 붙인 「배경 읽기」를 두어 때와 곳, 배경지식, 등장인물, 그리고 같은 무렵 우리 땅의 모습을 함께 보여 준다.

새벽의 홀로 걷기, 다섯 해에 걸친 침묵의 수련, 저녁마다 하루를 차례로 되짚는 습관. 공동체의 규율과 놀라운 이야기가 한 권 안에 겹쳐 있는 이 고전을 읽으며, 독자는 옛사람들이 무엇을 붙들고 살았는지 천천히 만나게 된다.

이 책에서 만나는 것

- 그리스어 원전에서 직접 옮긴 전 36장 308절
- 피타고라스 학파의 윤리 단편 열네 편과 잠언 세 묶음
- 장마다 붙인 「배경 읽기」와 그때 우리 땅의 이야기
- 실제 해안선 위에 새로 그린 지도·연표·도해 열두 점

① 과학과 영성출판사

값 18,000원

값 18000 원

03160



9 791123 065397
ISBN 979-11-23065-39-7

이어서 읽으시려면

이암블리코스의 피타고라스적 삶에 관하여 — 전체 336쪽

ssbook.kr/book/iamblichus

판매가 **10,800원** (POD 정가 18,000원)

- 전 페이지 컬러 PDF · 개인 영구 소장
- 카드 결제 즉시 내 서재에서 내려받기
- 공개 배포 · 재판매 금지

발간 도서 목록

다음 쪽부터 과학과영성출판사가 발간한 책 전체 목록(표지 · 가격 · 특징)을 안내합니다.

총 69종 · 판매가는 POD 정가의 60% · 컬러 PDF · 개인 영구 소장

인삼 (6)



만병통치 인삼의 신경내분비시스템
하나의 인삼뿌리는 어떻게 온몸의 스위치를 건드리는가
₩17,000원 → **10,200원**
ssbook.kr/book/ginseng-neuroendo



인삼과 당뇨
공복혈당 · 당화혈색소 · 합병증을 개선하는 인삼
₩17,000원 → **10,200원**
ssbook.kr/book/ginseng-diabetes



인삼과 대사증후군
허리둘레 · 중성지방 · HDL · 혈압 · 혈당을 개선하는 인삼치유의 과학적 원리
₩18,000원 → **10,800원**
ssbook.kr/book/ginseng-metabolic



인삼과 아토피
금산 아토피 마을에서 어린이 임상시험 설계까지
₩17,000원 → **10,200원**
ssbook.kr/book/ginseng-atopy



인삼과 암치유
실험실에서 진로실까지, 1,300편의 논문이 말하는 것
₩18,500원 → **11,100원**
ssbook.kr/book/ginseng-cancer



인삼의 임상연구
최신연구와 방법론
₩18,000원 → **10,800원**
ssbook.kr/book/ginseng-clinical

오토파지 (2)



스스로를 먹는 몸
오토파지, 자가포식, 세포가 자기를 고쳐 쓰는 법
₩18,000원 → **10,800원**
ssbook.kr/book/eating-self



오토파지와 암
세포는 스스로를 먹는다
₩17,000원 → **10,200원**
ssbook.kr/book/autophagy-cancer

식물성 저탄고지 (11)



뇌신경 4+2축과 성격유형 그리고 식물성 저탄고지
도파민 · 세로토닌 · 노르에피네프린 · 아세틸콜린 + 글루타메이트 · 가바
₩20,000원 → **12,000원**
ssbook.kr/book/brain-axes



당뇨를 개선하는 식물성 저탄고지
혈당 · 당화혈색소 · 체중을 함께 관리하는 식물성 케톤식 가이드
₩17,000원 → **10,200원**
ssbook.kr/book/pkd-diabetes



고혈압을 개선하는 식물성 저탄고지
 혈압·체중·혈관 건강을 함께 관리하는 식물성 케톤식 가이드
 17,000원 → **10,200원**
ssbook.kr/book/pkd-hypertension



비만을 개선하는 식물성 저탄고지
 체중·허리둘레·체지방을 함께 관리하는 식물성 케톤식 가이드
 17,000원 → **10,200원**
ssbook.kr/book/pkd-obesity



뇌전증을 개선하는 식물성 저탄고지
 뇌전증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논문 근거 기반 식물성 저탄고지 식단
 23,000원 → **13,800원**
ssbook.kr/book/pkd-epilepsy



우울증을 개선하는 식물성 저탄고지
 소화관과 장·뇌 축, 에너지 대사를 살피는 식물성 케톤식의 원리와 실천
 17,000원 → **10,200원**
ssbook.kr/book/pkd-depression



자폐를 개선하는 식물성 저탄고지
 일곱 갈래 기전이 한 점에서 만난다
 23,000원 → **13,800원**
ssbook.kr/book/pkd-autism



아토피를 개선하는 식물성 저탄고지
 피부 장벽과 면역, 장 건강을 살피는 식물성 케톤식의 원리와 실천
 19,000원 → **11,400원**
ssbook.kr/book/pkd-atopy



치매를 개선하는 식물성 저탄고지
 뇌 에너지 대사와 인슐린 신호, 혈관 건강을 살피는 식물성 케톤식의 원리와 실천
 24,000원 → **14,400원**
ssbook.kr/book/pkd-dementia



암을 개선하는 식물성 저탄고지
 치료 중 체중 유지와 근육 보존, 영양 상태를 함께 살피는 식물성 케톤식 가이드
 17,000원 → **10,200원**
ssbook.kr/book/pkd-cancer



관절염을 개선하는 식물성 저탄고지
 염증 신호와 체중 부하, 대사 건강을 살피는 식물성 케톤식의 원리와 실천
 17,000원 → **10,200원**
ssbook.kr/book/pkd-arthritis

단식 (1)



40일간 굶는 몸의 시간표
 카힐의 40일 연구, 혈당과 케톤과 자가포식을 중심으로
 18,000원 → **10,800원**
ssbook.kr/book/fasting-40days

생물리학 (4)



발골의 강
 피의 흐름에서 발바닥까지, 명과 몸 사이에서 확인된 것과 아직 모르는 것
 18,000원 → **10,800원**
ssbook.kr/book/river-toes



보이지 않는 99%, 부항 자국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
 부항과 미세혈관에 대한 열다섯 번의 강의
 17,000원 → **10,200원**
ssbook.kr/book/cupping99



세 겹의 뇌, 눈 위의 지휘자
매클린의 삼위일체 뇌와 안와전두엽 이야기
~~10,000원~~ → **10,800원**
ssbook.kr/book/triune-brain



광유전
빛으로 세포를 제어하는 기술 — 원리·실험·회로·치료
~~42,000원~~ → **25,200원**
ssbook.kr/book/optogenetics

독립영양인간 (2)



이암블리코스의 피타고라스적 삶에 관하여
그리스어 원전 완역 · 테일러 판 전편 수록
~~10,000원~~ → **10,800원**
ssbook.kr/book/iamblichus



홍산문화의 수행상에서 한국 선도까지
요하의 흠인형 · 우하량의 여신 · 해명경 · 태을금
화중지 다섯 갈래를 한자리에 놓다
~~26,000원~~ → **15,600원**
ssbook.kr/book/hongsan

중고등학교 교재 (30)



대입 과학논술 01 — 유전 암호·전사·번역
대학 기술로 완성하는 분자생물학의 중심원리
~~24,000원~~ → **14,400원**
ssbook.kr/book/nonsul-01



대입 과학논술 03 — 멘델 유전·감수분열·가계도
분리·독립 × 감수 분열 × 확률의 곱 — 기술 22문
항으로 읽는 유전
~~24,000원~~ → **14,400원**
ssbook.kr/book/nonsul-03



대입 과학논술 05 — 재조합 DNA·생명공학
제한 효소의 인식·절단 × 조각 길이로 위치 추론
× 재조합·판별 실험 설계
~~24,000원~~ → **14,400원**
ssbook.kr/book/nonsul-05



대입 과학논술 07 — 세포막·소기관·물질수송
인지질의 벽과 단백질의 문 — 물질은 기울기를 따라 흐른다
~~24,000원~~ → **14,400원**
ssbook.kr/book/nonsul-07



대입 과학논술 08 — 호르몬·항상성·배설
감지하고, 신호를 보내고, 되돌린다 — 혈당에서 콩
팥까지 항상성
~~24,000원~~ → **14,400원**
ssbook.kr/book/nonsul-08



대입 과학논술 09 — 면역·백신
몸은 기억한다 — 염증 반응에서 백신과 집단 면역
까지
~~24,000원~~ → **14,400원**
ssbook.kr/book/nonsul-09



대입 과학논술 10 — 세포호흡·광합성·에너지대사
포도당 한 분자의 ATP 장부 —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
~~24,000원~~ → **14,400원**
ssbook.kr/book/nonsul-10



대입 과학논술 11 — 신경계·활동전위
펄프가 기울기를 만들고, 통로가 열리고 닫히며 신호가 생긴다
~~24,000원~~ → **14,400원**
ssbook.kr/book/nonsul-11



대입 과학논술 12 — 생태·진화·생물다양성
에너지는 흐르고 물질은 돈다 — 개체군에서 종 분화까지
~~24,000원~~ → **14,400원**
ssbook.kr/book/nonsul-12



대입 과학논술 13 — 원자 구조·주기성
전자 배치 × 유효 핵전하 × 이온화 에너지로 읽는 주기성
~~24,000원~~ → **14,400원**
ssbook.kr/book/nonsul-13



대입 과학논술 14 — 화학 결합·분자 구조·극성
원자가 전자 세기 × 전자쌍 반발 × 쌍극자 벡터 합
24,000원 → **14,400원**
ssbook.kr/book/nonsul-14



대입 과학논술 15 — 분자 간 힘·수소 결합·계면
극성 × 분자 간 힘의 서열 × 계면 에너지로 읽는 물질
24,000원 → **14,400원**
ssbook.kr/book/nonsul-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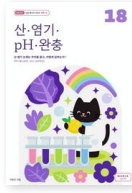
대입 과학논술 16 — 유기 화학·생체 분자·고분자
유기 화학·생체 분자·고분자 논제 해설
24,000원 → **14,400원**
ssbook.kr/book/nonsul-16



대입 과학논술 17 — 화학양론·농도
몰 × 반응식 계수비 × 농도 환산으로 푸는 화학 계산
24,000원 → **14,400원**
ssbook.kr/book/nonsul-17



대입 과학논술 18 — 산화·환원과 산화수
산화·환원과 산화수 논제는 무엇을 묻고, 어떻게 답하는가
24,000원 → **14,400원**
ssbook.kr/book/nonsul-18



대입 과학논술 19 — 산·염기·pH·완충
평형(K) × 몰수 계산 × 부피 보정으로 푸는 산·염기
24,000원 → **14,400원**
ssbook.kr/book/nonsul-19



대입 과학논술 20 — 반응 속도
넘어야 할 언덕 — 반감기에서 촉매, 반응 메커니즘까지
24,000원 → **14,400원**
ssbook.kr/book/nonsul-20



대입 과학논술 21 — 화학 평형
평형 상수 K × 반응 지수 Q × 르샤트리에로 읽는 화학 평형
24,000원 → **14,400원**
ssbook.kr/book/nonsul-21



대입 과학논술 22 — 열화학·엔탈피·자유 에너지
열화학 논제는 무엇을 묻고, 어떻게 답하는가
25,000원 → **15,000원**
ssbook.kr/book/nonsul-22



대입 과학논술 23 — 용액·총괄성·상평형
용액·총괄성·상평형 논제는 무엇을 묻고, 어떻게 답하는가
24,000원 → **14,400원**
ssbook.kr/book/nonsul-23



대입 과학논술 24 — 기체
기체 논제는 무엇을 묻고, 어떻게 답하는가
24,000원 → **14,400원**
ssbook.kr/book/nonsul-24



대입 과학논술 25 — 화학 전자·전기 분해
화학 전자·전기 분해 논제는 무엇을 묻고, 어떻게 답하는가
24,000원 → **14,400원**
ssbook.kr/book/nonsul-25



01 통합과학 화학 1 — 소금과 별
원자에서 원소의 기원·주기율표까지
18,000원 → **10,800원**
ssbook.kr/book/tonghap-01



02 통합과학 화학 2 — 못은 왜 녹슬까
결합에서 반응·산과 염기까지
18,000원 → **10,800원**
ssbook.kr/book/tonghap-02



03 통합과학 생명과학 1 — 배추는 왜 숨이 죽을까
본자에서 세포·호소·에너지까지
±8,000원 → **10,800원**
ssbook.kr/book/tonghap-03



04 통합과학 생명과학 2 — 늑대가 돌아오자
유전 정보에서 진화·생태계까지
±8,500원 → **11,100원**
ssbook.kr/book/tonghap-04



05 통합과학 물리 1 — 미끄럼틀은 왜 뒤통해질까
원자에서 힘과 에너지까지
±2,000원 → **13,200원**
ssbook.kr/book/tonghap-05



06 통합과학 물리 2 — 호박 구슬과 나침반
원자에서 전자기파까지
±4,000원 → **14,400원**
ssbook.kr/book/tonghap-06



07 통합과학 지구과학 1 — 구름은 왜 떨어지지 않을까
대기·기압·복사 에너지로 읽는 날씨
±1,000원 → **12,600원**
ssbook.kr/book/tonghap-07



08 통합과학 지구과학 2 — 단양의 돌은 바다였다
원자에서 암석·판·지구의 역사까지
±8,000원 → **12,000원**
ssbook.kr/book/tonghap-08

채식 (5)



사상체질과 채식
이제마의 사상·권도원의 팔체질·황제내경을 영
양학과 분자생물학으로 다시 읽다
±1,000원 → **12,600원**
ssbook.kr/book/sasang-veg



체질과 심리신경내분비
사상·팔체질·황제내경과 Big5·MBTI를 몸의
언어로 다시 읽다
±8,000원 → **10,800원**
ssbook.kr/book/constitution-neuro

역사 속의 채식인
채식의 역사를 사람들의 이야기로 읽다
교보문고 판매
ssbook.kr/book/veg-history

채식이야기
채식에 관한 이야기
교보문고 판매
ssbook.kr/book/veg-story

우리 몸은 채식을 원한다
몸이 채식을 원하는 이유
교보문고 판매
ssbook.kr/book/body-wants-veg

라이프스타일 (3)



아주 쉬운 회춘의 원리
노화의 12가지 특징과 식이를 통한 회춘
±8,000원 → **10,800원**
ssbook.kr/book/rejuvenation



피부는 안에서 만들어진다
콜라겐·아쿠아포린·자가포식과 식물성 케톤식
±8,400원 → **11,000원**
ssbook.kr/book/skin-inside

고대사 (5)



동아시아 1만 년의 기후와 땅

한반도에서 본 홀로세의 기후와 지형 변화

25,000원 → **15,000원**

ssbook.kr/book/climate-ea-1



고려 서경(西京)의 위치를 추정하다 1권 방법편

여덟 가지 방법으로 동아시아 고전 지명을 좌표로 옮기기

25,000원 → **15,000원**

ssbook.kr/book/seogyyeong-1



고전의 지명을 좌표로 옮기다 제1권 기초편

동아시아 고전 지명의 계량적 위치 추정 (제1~7장)

21,000원 → **12,600원**

ssbook.kr/book/geonames-1



고전의 지명을 좌표로 옮기다 제2권 기법편

동아시아 고전 지명의 계량적 위치 추정 (제8~16장)

24,000원 → **14,400원**

ssbook.kr/book/geonames-2



고전의 지명을 좌표로 옮기다 제3권 적용편

동아시아 고전 지명의 계량적 위치 추정 (적용 사례)

25,000원 → **15,000원**

ssbook.kr/book/geonames-3